

적극적인 변화 수용으로 잠재적 기회를 만드는 **홍일산업**

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지역본부 복해용 사내기자

혈관은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건축물에도 혈관 역할을 하는 건축자재가 있다. 바로 배관이다. 8월호에 방문한 홍일산업은 PVC 배관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오랜 역사와 경쟁력을 자랑한다.



홍일산업 최인팔 대표이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회복탄력성 기업

홍일산업은 1984년 최초 설립 후 플라스틱 가공업을 활용한 썬라이트지붕을 주력으로 제작한 기업이다. 1980년대 점차 단독 주택 수가 줄어들고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홍일산업은 부정적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위기에 접근해 잠재적 기회를 찾았다. 주력 제품이었던 썬라이트지붕 제작을 사양 산업이라고 빠르게 판단하고, 성장산업 전환을 위해 PVC 배관 사업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1989년 KS 인증을 시작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결과 현재는 국내 상위 PVC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동종업계에서 줄폐업이 나올 만큼 업황이 좋지 않다.

이런 힘든 시기에도 홍일산업은 다수의 특허 보유를 이용해 상품을 제작하여 수급을 늘려나갔다. 제조업 분야에서 보기 드문 자동공정시스템을 채택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등 돌파구를 찾았다. 변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솔루션에 집중하는 등 위기에 대처가 강한 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홍일산업을 탐방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넓은 부지 대비 최소 인력으로 유지되는 공정시스템이었다. 3,000평을 훌쩍 넘는 부지에 노동자 수는 50명

남짓으로 매우 단출한 편이었다. 최인팔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로 사출에서 포장까지 모든 전 공정이 자동화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빛바래 보이는 공장 외부와 다르게 내부는 수많은 자동화 장비가 즐비했다. 그 결과 노동시간은 최소화하고 생산성은 극대화할 수 있었다.

노동자의 안전문화활동을 장려하는 안전보건 지킴이

벽면마다 보이는 ‘청소청결’ ‘정리정돈’ ‘안전준수’ ‘습관화’라는 여러 색의 큰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 문구는 투박했지만 어디서나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리 정돈이 불량하면 작업장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지속될 경우는 불안정한 행동으로 이어져 산업재해 혹은 품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김경석 이사는 벽면에 부착한 표어 제작 사유를 설명하며 문구 또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부착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분진발생이 많은 작업환경에서는 깨끗한 환경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작업자에게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분진 누적으로 인한 기계 오작동을 막아 품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품질 향상은 불량률을 줄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스란히 작업자의 불필요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돌아간다.

김경석 이사는 노동자의 안전문화구축을 위해 직원들에게 사소한 것부터 장려하며 안전보건활동을 의무화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안전작업 수행이 습관화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는 말처럼 여러 과정을 지나자, 지금은 구성원 누구나 업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작업공간은 이전보다 늘어나 이동이 편해졌고, 사용한 물품이 항상 제자리에 있어 불필요한 노동력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노동자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홍일산업 안전보건 지킴이 김경석 이사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사회적 의무, ESG 경영 컨설팅 구축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난 2024년 1월부터 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은 큰 공포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규제의 틀은 중소기업이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ESG 경영 규제에 대한 불안도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현실 적용까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 지원은 아직 부족하고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규제에 대처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에 ESG 관련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ESG 경영 실천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